

기계설비건설 발전 2016년 워크숍 개최

- 협회·조합·연구원 공동 개최 -



협회 · 조합 · 연구원은 지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경북 문경에서 기계설비건설 발전 2016년 워크숍을 개최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기석),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원장 이연구)은 지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경북 문경시 소재 문경레저타운에서 기계설비건설 발전 2016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협회 박인구 · 홍평우 · 박종학 고문을 비롯하여 강석대 명예회장, 회장단, 전국 시 · 도회장 및 이사, 윤리위원, 해외기계설비건설발전위원, 편집위원, 기계설비선진화추진위원, 가스 · 플랜트 · 자동제어 공종별 협의회 위원장 등이 참석

했으며, 설비조합 운영위원, 연구원장, 협회 및 조합 임 ·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회장 “우리협회는 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협회와 가칭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를 내년 초에 창립하여 기계설비 위상 강화를 위한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

워크숍에서 이상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4년 3월에 출범한 제9대 집행부는 향후 100년을 향한 제



워크숍에서 협회와 조합은 지난 3년간의 사업실적을, 연구원은 2년간의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2 도약의 기틀 마련을 위해 협회와 조합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우리업계는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개원으로 협회와 조합, 연구원을 모두 갖춘으로써 기계설비산업의 균형적 발전기반을 마련하였고, 협회와 조합 명칭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으로 변경하여 명실상부한 기계설비 단체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국토부로부터 매년 7월 16일을 ‘기계설비의 날’로 지정받아 올해 처음으로 기념식을 성대하게 치르면서 기계설비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응집력 강화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상일 회장은 또 “그동안 우리업계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걸음 더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명예회장님과 시·도회장님, 이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회원사가 주신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이상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협회가 한 걸음 더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명예회장님을 비롯하여 시·도회장님, 이사님, 모든 회원사의 신뢰와 믿음 덕분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상일 회장은 “과거 1950년대의 기계설비는 건축공사 중 1%도 안되었지만, 최근에는 20~50%로 그 비중이 점점 커짐에 따라 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기계설비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법적 지원을 적극 요청하고 있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하며 “우리협회는 전기공사협회,



사업실적 및 연구성과 발표(좌로부터 협회 조현일 본부장, 조합 김경희 전무, 연구원 이연구 원장, 기계설비산업선진화위원회 유호선 위원장)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협회와 가칭 시설공사
업단체연합회를 내년 초에 창립하여 기계설비 위상
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노력하
겠다”고 강조했다.

협회, 조합, 연구원, 3년간 사업실적 및 연구성과 발표

워크숍에서 협회와 조합, 연구원은 지난 3년간의
사업실적 및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협회 조현일 정
책본부장은 협회 현황 보고와 함께 △기계설비 분리
발주 · 주계약자공동도급 TF 운영 및 활성화 △기계
설비 위상 및 역량강화 △기계설비 공무원가 확보
△계약, 하도급 등 제도개선 △기술자 양성 및 확보
△기계설비 홍보사업 △제 위원회 및 공종별 협회의
사업추진 현황 △대외협력사업 등에 대해 보고했다.

설비조합은 김경희 전무가 조합의 일반 현황에 대
한 보고에 이어 중점 추진사업으로 △조합 경영개선
방안 △보증제도 개선 △공제사업 개선 추진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서 연구원의 연구활동 보고에서 이연구 원장
은 △2016년 10개 연구과제 △기계설비건설업체의
부도예측모형 개발 연구 △기계설비건설업 동향 분
석을 위한 기초연구 등 주요 연구과제를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선 기계설비산업선진화위원회 위
원장은 기계설비산업 재인식과 선진화 추진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협회의 실적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워크숍
실적보고> 면에서 계속됩니다.

최고 리더들의 1% 다른 건강습관 만들기 강연

한편, 협회와 조합, 연구원은 워크숍 시작에 앞서
한국건강증진연구소 김남진 대표(의학박사)의 “최고
리더들의 1% 다른 건강습관 만들기” 특별강연 시간
을 가졌다.

김남진 박사는 △내 몸의 건강 보증기간을 늘려
래! △틈새 습관을 잡아야 제대로 산대! △절주를 위
해 버려야 할 것, 채워야 할 것! △내장 비만 (뱃살




초청강연을 통해 김남진 박사는 건강한 습관 만들기에 대해 설명했다

포함)을 잡기위한 생활수칙! △건강을 위한 운동, 운동을 위한 운동! △보약을 만드는 식습관, 독소를 채우는 식습관! △행복을 만드는 습관, 불행을 만드는 습관! 등의 내용을 주제로 건강 습관 만들기 강연을 통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남진 박사는

- 한국건강증진연구소 대표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외래교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논문심사위원
- 서울시 행복재단(의료, 보건분야) 자문위원
- KBS 2TV 건강테크, MBC TV 시민강좌, KC TV 명사특강 등으로 총 3,500회 강연
- 저서 “건설업 근로 감독자들의 스트레스와 안전의 관계” 외 다수

기계설비 홍보영상 시청

이날 행사에서 워크숍 참석자들은 특별강연에 이어 YTN사이언스 TV에서 방영된 “삶의 질을 높이는 기계설비” 제목의 홍보 영상물을 시청했다. 



기계설비 홍보 동영상 시청


제152차 이사회 개최



협회는 지난 10월 28일 경북 문경에서 제15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는 지난 10월 28일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 레저타운에서 제15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위임전결규정 개정(안)과 상임이사(상임부회장) 선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상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사회에서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결재단계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위임전결규정 개정안을 비롯해 신임 상임부회장 선출안을 의결하는 중요한 회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사회를 통해 협회의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회장의 업무에 대한 중요 사항만 규정화 하고 나머지 전결사항 범위에 대하여는 회장의 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위임전결규정이 개정됐으며, 현 강신구 상임부회장 후임으로 신임 상임부회장에 부산지방항공청 이근구 前관리국장을 선출했다. 신임 상임부회장 임기는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다. 

시·도회장 회의 개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는 지난 10월 20일 기계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시·도회장 회의를 개최하고 협회 추진업무 보고를 비롯하여 위임전결규정 개정(안) 및 상임부회장선출(안)을 협의했으며, 협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일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협회는 조달청장 간담회 등 분리발주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면서 “한 걸음 더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시·도회장님들이 신뢰를 보내주시는 덕분이며, 앞으로 일반 국민들도 기계설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한편 시·도회장회의에서 보고된 협회 추진업무는 다음과 같다. 

- 조달청장과 4개 시설공사업 단체 간담회
-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 분리발주 추진
- 국방부, 기계설비 분리발주 시범공사 예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행자부 유권해석 추진
- 경기도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 제정 추진
- 경상북도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 제정 추진
- 소방기술자 현장배치기준 제도개선 추진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 간사 간담회
- 기계설비공사 적정공사비 확보 추진
- 2016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 노임단가 발표
- 2016년 기계설비건설업 시공능력평가·공시
- 제35회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 추진
- 제24회 건설기능경기대회 개최
- 2016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
-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실시
- 기계설비 홍보 추진
- YTN science 황금나침반 기계설비 홍보 계획
- 기계설비 전문가 일간지 기고 계획
- 「기계설비건설 발전 2016 Work-Shop」개최 계획



협회는 지난 10월 20일 기계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시·도회장 회의를 개최했다

2016년도 하반기 기계설비건설업계 합동행사 개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는 지난 10월 22일 경기도 광주시 그린힐에서 한국종합건설기계설비협의회와 공동으로 2016년 하반기 기계설비건설업계 합동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분리발주 확대, 표준품셈 하락 최소화, 표준시장단가, 임금실태조사 협조, 기계설비 자재전시회 등 기계설비건설업계 공통 현안을 논의하고 두 단체간 협력 강화와 친목도모를 위해 마련한 행사로, 협회 이상일 회장, 협의회 이용우 회장을 비롯하여 약 4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우리협회와 종건협의회는 기계설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앞으로는 보다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고품질 시공공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정 이윤 보장과 함께 기계설비

건설업계는 장비를 포함한 시공부문을, 종합건설업계는 계약과 리스크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함으로써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 밝혔다.

이용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는 내진 부분에 대한 큰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예산 확보부터 설계, 시공까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매우 고민이다”면서 “앞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계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합동행사에서는 협회 조현일 정책본부장이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건설공사 표준품셈 하락 최소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최소화 △2016년 하반기 기계설비 직종 임금실태조사 협조 등 기계설비업계 공통 현안사안에 대해 발표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한국종합건설기계설비협의회는 지난 10월 22일 2016년도 하반기 합동행사를 개최했다


제40차 인정기능사 심사위원회 개최



지난 10월 20일 개최된 인정기능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45명의 인정기능사 최종 합격자가 결정됐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인정기능사 심사위원회(위원장 백종윤)는 지난 10월 20일 기계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40차 인정기능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정기능사 경력증발급 심의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인정기능사 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4일 한국폴리텍대학 정수캠퍼스에서 실시된 인정기능사 실기검정 응시자에 대한 최종합격자 결정을 위한 심의가 이뤄졌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결정된 최종 합격자 45명에게 11월 중으로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기능종목별 최종합격자

배관	용접	공조냉동기계	합계
35명	6명	4명	45명

제34차 자동제어설비공사협의회 회의 개최




자동제어설비공사협의회는
지난 10월 7일 기계설비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34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자동제어설비공사협의회 (위원장 전치권)는 지난 10월 7일 기계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제34차 회의를 개최하고 자동제어업계 현안 및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전치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9대 자동제어설비공사협의회도 출범한지 엇그제 같은데 마지막 정기회의를 하게 되니 빠른 세월을 실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치권 위원장은 또한 “우리 협의회는 그동안 업계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생산자동화’ 인정기능사를 신설하고 자동제어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지속 건의하는 등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

울어 왔다”면서 “지난 3년간 대과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간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이 자리를 통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생산자동화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 △건설공사 시중노임단가 조사 등 업무추진 현황을 비롯하여 공공공사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 제정 추진, 기계설비산업 정책 개발 연구용역 추진, 해외 기계설비건설 발주제도 연구용역 추진, 2016 Work Shop 개최 등 협회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의견을 나눴다. 

제42차 기계설비건설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TF 위원회 개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건설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TF 위원회(위원장 백종윤)는 지난 10월 25일 서울시회 회장실에서 제4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YTN 기계설비 홍보 현황,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대응 책자 제작계획안,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사업 분리발주 추진 현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행자부 유권해석 추진 현황, 경상북도 및 경기도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 제정 추진 현황 등을 비롯해 전북교육청·산업부·세종시 등 분리발주·주계약자 업무

추진 현황이 보고됐으며, 내공사·도로공사·가스공사 등 발주 현황 등이 논의됐다.


백종윤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대응 책자는 분리발주의 당위성에 대한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나중에 나오는 역삼각형 구조로 구성해야 한다”면서 “업역 체계 문제, 각종 사례들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제시하고, 일반적인 기계설비 뿐만 아니라 가스·플랜트·자동제어도 같은 산업영역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6차 기계설비산업 선진화추진위원회 개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 기계설비산업 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유호선)는 지난 10월 18일 기계설비건설회관 소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계설비건설 발전 2016 워크숍’에서 발표할 『기계설비산업 재인식과 선진화 추진』 발표 내용에 대해 논의했으며, 대한건설협회에

서 발간한 분리발주 반대 자료집에 대한 대응하여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관련 자료집』 발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기계설비공사 시공상세도 작성비 기준 마련 연구와 관련하여 절차 및 방향을 논의했으며 기계설비산업 선진화 정책개발 연구 중간보고 내용을 협의했다. 


뉴스 전문 채널 YTN, 기계설비 홍보물 방영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는 뉴스 전문 채널인 YTN과 공동으로 기계설비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6일까지 YTN과 YTN 사이언스 TV ‘황금나침반’ 코너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기계설비” 제목으로 방영했다.

이 홍보물은 인천공항공과 고척스카이돔, 잠실제2롯데월드쇼핑몰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설비 소개를 통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계설비, 건축물과 생산현장에 생명을 불어넣는 기계설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협회 이상일 회장과 유호선 송실대 교수

인터뷰를 통해 기계설비건설업계의 현실, 기계설비가 제대로 시공되기 위한 법적 지원 마련 등의 내용이 방영됐다.

기계설비 홍보물은 향후 협회 홈페이지 탑재 및 발주기관, 정부, 국회 등을 방문할 때 기계설비 홍보 영상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총회 등 각종 협회, 조합, 연구원 행사 시 홍보 영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홍보를 통해 일반국민들이 기계설비에 대한 이해는 물론 중요성 인식 등 기계설비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1월 6일 YTN에 방영된 기계설비 홍보영상

전국 시·도회 노무강습회 개최



부산광역시회



대구광역시회



울산·경남도회



경기도회



강원도회



전북도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는 회원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회원사 밀착형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지난 9월에 이어 10월 6일 대구광역시회, 7일 부산광역시회, 10일 강원도회, 14일 전북도회, 19일 경기도회, 21일 울산·경남도회 노무강습회를 개최했다.

올해 노무강습회는 협회 노무 자문위원인 김광태 노무사(노무법인 다현)가 강의를 맡아 △건설 근로자의 고용관리 실무 △특이형태 근로자 고용관리 △건설 사회보험 관리 △노동부 지원금 제도 △건설 산업안전 관리 등을 강의했다.

올해 개최된 노무강습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16년 노무강습회 개최 일정

시·도회명	개최일	장소
서울시회	9.23(금)	기계설비건설회관 1층 대회의실
부산시회	10. 7(금)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
대구시회	10. 6(목)	대구상공회의소 10층 대강의실
인천시회	9.20(화)	인천상공회의소 4층 교육장
광주·전남도회	9.29(목)	5.18 교육관 1층 회의실
대전·세종·충남도회	9.27(화)	사학연금둔산회관 2층 회의실
울산·경남도회	10.21(금)	울산과학대학 서부캠퍼스 1공학관 201호
경기도회	10.19(수)	수원상공회의소 대회의실
강원도회	10.10(월)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대강의실
충북도회	9.26(월)	충청북도 지방기업진흥원 제2교육장
전북도회	10.14(금)	전주뱅크빌딩 3층(세미나실)

서울특별시회, 제1회 서울시 건설상 최우수상 수상



서울시회는 지난 10월 21일 제1회 서울시 건설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서울특별시회(회장 백종윤)는 지난 10월 21일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3층에서 서울특별시로부터 ‘제1회 서울시 건설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는 백종윤 회장과 조종택·이용섭 부회장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회 회원사 및 본회·서울특별시회 임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시 건설상’은 기존 서울시토목상을 확대하

여 제정된 상으로, 안전하고 수준 높은 서울의 도시 기반시설 건설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또는 단체에게 서울특별시가 시상하는 ‘서울시 건설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올해 수상자 선정은 서울대학교 장승필 명예교수를 비롯하여 서울시의원, 시민감사옴부즈만, 언론계, 학회, 협회, 연구원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2016년 서울특별시 건설상 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장승필)’가 맡아서 진행했다.

서울특별시회는 서울시 기계설비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 및 품질점검을 주도하여 안전시공 및 시공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우수기능인 양성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등 서울시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회원사를 대표하여 서울시 건설상을 수상한 백종윤 회장(우)

서울특별시회, 제1회 서울시 건설상 최우수상 수상 주요 공적내용

1. 서울시 건설공사 현장 안전 및 품질점검

- 서울 시정 목표의 하나인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동참하고자 서울시에서 발주된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 공사장 등을 중심으로 안전 및 품질점검을 협회 자체적으로 서울시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안전관리 계도와 함께 공사품질 향상에 기여
- 25개 공사현장 안전 및 품질점검 실시 중 (2011~2016)

2. 건설기능공 인정기능사 제도 활성화

-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매년 배관, 용접 등 10개 종목 신청자의 서류심사 및 실기시험 실시. 인정기능사 자격자 배출로 건설현장 유능 기능공 참여 기회 제공에 따른 시공품질 향상
- 서울시 관내 인정기능사 1,700여명 발급 (2016. 6월 현재)

3. 대학졸업 미취업 구직자, 해외건설인력 육성을 위한 K-MOVE 스쿨 운영

- 해외건설현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계설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대학졸업 미취업 구직자들을 두원공대의 K-MOVE 스쿨 프로그램 교육을 통하여 해외건설현장에 파견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해외건설인력 육성에 기여
- 대학졸업 미취업 구직자 66명 모집 교육, 해외건설 현장 58명 파견(2014~2015)

4. 기계설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

- 수도권 대학 기계설비 관련학과 재학생 및 서울 소재 기계설비건설업체 임직원 및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연 2회 장학금 지급

- 최근 5년간 241명에게 약 4억4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기계설비 인재 양성에 기여

5. 정부표준품셈 및 기계설비 일위대가표 도서 제작 보급

- 기계설비공사 부문 정부표준품셈 및 일위대가표 제·개정에 따른 각종 자료 및 관련도서를 제작하여 서울시 산하 자치단체 사업소, 공기업에 무료 배부

※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회 안전 및 품질점검 실시 현황

점검일자	공사명
2016.9.6	강북청소년수련관 증축 기계설비공사
2016.8.30	서울창업허브 조성 기계설비공사
2016.7.21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조성 전면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
2016.6.21	도심권 50+캠퍼스 및 복지타운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
2016.6.2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설치 기계설비공사
2016.5.17	서울혁신파크 중소규모 건축물 개보수 기계설비공사
2016.4.19	양천주민편의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
2016.2.26	서울 재사용플라자 건립 기계설비공사
2016.2.23	서울과학관 건립 기계설비공사
2015.10.8	양천주민편의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
2015.4.27	서울과학관 건립 기계설비공사
2015.1.20	마포구민체육센터 건립 기계설비공사
2014.11.14	일산선 원흥역사 기계설비공사
2014.10.28	청주 율량2 9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2014.4.29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기계설비공사
2013.12.19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
2013.9.13	구산보건지소 건립 기계설비공사
2013.5.28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
2012.12.18	서울서초3동 우체국 건립 기계설비공사
2012.11.06	소사벌1초 교사 신축기계설비공사
2012.6.14	서대문우체국 건립 기계설비공사
2012.5.9	인양 관양 A-2BL 기계설비공사
2011.12.14	서울은평우체국 건립 기계설비공사
2011.11.29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특기생 기숙사 증축공사
2011.9.22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신축 공조소방설비공사


2016년 추계 회원사 등산대회 개최



서울특별시회는 지난 10월 25일 남한산성 둘레길에서 2016년 추계 회원사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회(회장 백종윤)는 지난 10월 25일 남한산성 둘레길에서 서울특별시회 회원사 50여명을 비롯해 본회·조합·연구원 등 초청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추계 회원사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회 회원사의 체력단련과 유대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등산대회는 남한산성 둘레길 북문을 출발하여 수어장대와 남장대터를 거쳐오는 코스로, 무르익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회원사 상호 결속을 다지는 뜻깊은 행사가 됐다.

백종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침에 비와 안개가 있어서 걱정했는데 우리 회원사를 반겨주듯 비와 안개가 거짓말처럼 걷혔다”면서 “오색찬란한 가을의 정취 속에서 회원사들이 정담을 나누며 유대를 강화하는 즐거운 등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제301차 운영위원회 개최

서울특별시회(회장 백종윤)는 지난 10월 25일 회원사 등산대회 개최 전 남한산성 재넘어주막에서 제30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표회원 간담회 강사 선정 등을 협의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백종윤 회장은 “폭염으로 힘든 계절을 보냈는데,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서울시 건설상 최우수상 수상 등 우리 시회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면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비롯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등 협회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으니, 우리 업계 스스로도 신뢰를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회는 10월 업무추진 실적과 11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서울특별시회의 11월 업무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11월 업무추진 계획

-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강연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 서울특별시장 초청 간담회 참석 및 현안사항 건의
- 자문 대표회원 간담회 개최
- 제4,5권역 합동 회원사 간담회 개최
- 대표회원 송년회 개최 안내 등 🎯



서울특별시회는 지난 10월 25일 남한산성에서 제30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가업승계 성공전략 및 지원제도 강연회 개최




서울특별시회는 지난 11월 2일 기계설비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가업승계 강연회를 개최했다

서울특별시회(회장 백종윤)는 지난 11월 2일 기계설비건설회관 6층 중회의실에서 회원사의 성공적인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성공전략 및 지원제도 강연회를 개최했다.

서울시회 창업원로 회원사를 비롯해 대표회원사 등 20여 회원사가 참석한 이번 강연회는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효중 공인회계사를 초청하여 △가업승계 계획수립 △회사 소유권 및 경영권 이전 방안 절차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제도 및 세제혜택 등을 강의했다.

백종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년 봄부터 회원사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어서, 올해를 넘기지 않고 반드시 가업승계 강연회를 개최하고 싶었다”면서 “바쁘신 와중에서 가업승계에 관심이 있거나 현재 진행 중이신 창업주 회원사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백종윤 회장은 또한 “가업승계를 추진하는 회원사 각각의 특수성이 있으니 오늘 강연을 바탕으로 컨설팅을 추가로 받는다면 성공적인 가업승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백종윤 회장


서울 금천우체국 건립 기계설비공사 시공품질 점검

서울특별시회 시공품질점검위원회(위원장 이용섭)와 인천광역시회는 합동으로 지난 10월 7일 삼진공영(주), 프라임방재(주), (주)세리공영 3개사가 공동도급으로 수주하여 시공 중인 '서울 금천우체국 건립 기계설비공사' 현장을 방문, 시공품질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 현장은 2015년 10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시공 중에 있으며, 총 계약금액은 약 24억원으로 현재까지 87% 대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은 기계설비 분리발주 정착을 위해 우수한 공사품질과 타 공종 간의 긴밀한 소통으로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공까지 솔선수범

을 당부코자 마련한 것으로, 발주처인 우정사업조달센터 관계자를 비롯해, 감리단장, 기계감리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현장점검 위원으로 참여한 서울시회 박영진[범동건설(주) 대표] 위원과 인천시회 임윤철(주) 반석기건 대표] 위원은 삼진공영(주) 한상경 대표와 정관중 현장소장에게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현장관리 뿐만 아니라 공종 간의 철저한 협의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발주처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현장관리와 정밀시공에 주력하여, 업계의 분리발주 확대에 기여함은 물론 우수 시공사례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회와 인천시회는 합동으로 지난 10월 7일 '서울 금천우체국 건립 기계설비공사' 시공품질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대구지역 가스시설 개선사업 개최

대구광역시회(회장 김주환) 가스 재난·재해예방복구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민균)는 지난 10월 7일 대구시 달서구에서 2016년 대구지역 독거어르신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이날 개선사업 행사에는 대구광역시회 김주환 회장과 이민균 가스 재난·재해예방복구 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김경열 위원[(주)경원엔지니어링 대표], 이재명 위원[(주)신명설비 대표], 한승우 위원[(주)주영이앤지 대표] 및 박창한 사무처장을 비롯해 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 이두형 위원장과 김인찬 가스자문위원, 대구 달서구 노인복지관(관장 윤옥) 자원봉사단이 참여했다.

대구광역시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달서구 일대

어르신 100여세대들을 방문하여 가스시설을 점검하고 가스타이머 콕을 무상으로 설치·지원했으며, 향후 지원사업을 단계적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가스타이머 콕은 가스 중간밸브에 장착되어 설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밸브가 잠기는 장치로서 독거어르신 세대의 가스 과열로 인한 화재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정부의 대국민 가스 안전확보사업의 일환으로 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 산하 전국 시·도회의 재난·재해예방복구 운영위원회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



대구 가스 재난·재해예방복구 운영위원회는 지난 10월 7일 독거어르신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2016 회원 단합대회 개최




대구광역시회는 지난 11월 2일 경남 밀양시 천황산 일대에서 2016 회원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대구광역시회(회장 김주환)는 지난 11월 2일 김주환 회장, 이한수 명예회장을 비롯하여 회원사 대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밀양시 천황산 일대에서 '2016 회원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대구광역시회 회원사의 체력증진과 정보교류를 위해 마련된 이날 단합대회는 절정의 가을단풍과 역사물 속에서 천황산 일대 약 7km 코스를 걸으며

단합을 도모하고 결속을 다졌다.

김주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지러운 국가 상황과 어려운 건설경기 속에서도 기계설비건설업을 경영하고 계시는 회원사 대표께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단합대회를 통해 회원사 간 결속이 한층 더 강화되길 바라며, 협회에서는 업계 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귀주성 해외시찰 및 해외문화 탐방



울산·경남도회는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중국 귀주성 지역 해외시찰을 실시했다

울산·경남도회(회장 김원열)는 해외 건축물 시찰과 회원사 친목도모를 위해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3박 5일 동안 중국 귀주성 지역 해외시찰을 실시했다.


이번 해외시찰은 회원사 대표 및 부부동반 32명이 참가하여 중국 귀주성 지역 건축물의 설비현황



지역 소수민족과 문화행사 개최

을 점검하고 진출방안을 모색했으며, 묘족·브이족 등 지역 소수민족과 뜻깊은 문화행사도 열었다.

울산·경남도회는 23개 시·군·구에 분포한 회원사들의 협회 참여도를 높이고, 회원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전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해외시찰 참가신청을 받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시설 견학을 통해 기계설비 현황을 점검하고 회원 상호간 정보공유 및 유대강화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앞으로도 울산·경남도회는 회원사들이 해외 유수건축물 견학 및 문화탐방을 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폴리텍대학 충주캠퍼스와 산학협력 체결




충북도회는 지난 10월 25일 한국폴리텍대학 충주캠퍼스와 산학협력을 맺고 상호 지원을 약속했다

충북도회(회장 김동오)는 지난 10월 25일 기계설비 인재양성을 위해 한국폴리텍대학 충주캠퍼스와 산학협력을 맺고 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과 채용 등에 상호 지원기로 했다.

한국폴리텍대학 충주캠퍼스에서 열린 이번 산학협력 협약식에는 김동오 회장을 비롯하여 임원, 폴리텍대학 충주캠퍼스 황병길 학장을 비롯해 처장 및 학과장 등 대학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동오 충북도회장은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회원사에게 이번 업무협약이 많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협회는 대학 발전에 적극 협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과 회원사 재직자의 기술향상을 촉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회는 이날 산학협력식에서 학생들의 학업의욕 고취를 위해 한국폴리텍대학 충주캠퍼스에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충북지역 가스타이머 콕 설치사업 출범

충북도회(회장 김동오) 가스 재난·재해예방복구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종헌)는 지난 10월 5일 청주시 상당노인복지관에서 가스 안전점검 및 무료 가스타이머 콕 설치 보급사업 출범식을 갖고 청주지역 독거 어르신 세대 100가구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김동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충북도회 회원사들이 건축물의 가스시설 설비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독거어르신 세대에 대한 사회공헌을 펼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충북도회에서 무료 보급한 가

스타이머 콕은 가스배관과 잠금장치 사이에 설치하는 것으로 독거 어르신들이 생활 중에 가스불을 켜놓은 상태에서 깜박 잊고 가스불을 끄지 않아 화재로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타이머 콕을 설치,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회는 무료 가스타이머 콕 설치 보급사업과 함께 독거어르신 세대의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업계 이미지 제고와 가스안전 사고 예방에 앞장설 계획이다. 



충북도회는 지난 10월 5일 가스 안전점검 및 무료 가스타이머 콕 설치 보급사업 출범식을 갖고 독거 어르신 세대에 봉사활동을 펼쳤다

2016년 사랑의 장학기금 기탁




전북도회는 지난 9월 28일 전라북도 교육청에 사랑의 장학기금을 기탁했다

전북도회 (회장 이영길)는 지난 9월 28일 전라북도 교육청을 방문, 김승환 교육감에게 사랑의 장학기금을 기탁했다. 이 기금은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재단에 전달되어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영길 회장은 장학금을 기탁하며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배움의 길을 걸었으면 하는 마음에 우리 회원사들이 정성을 담아 기금을 모았다”면서 “흙수저·금수저가 불변의 진리인 양 비약하는 사회적 풍토와 이로 인해 삶의 중요한 가치를 무모하게 만드는 사회적 선동에서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승환 교육감은 “매년 잊지 않고 사회공헌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원사 여러분의 배려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우리 주변에는 생활이 어려워 아침식사를 못 하거나, 부모님이 안 계셔서 외로워하는 학생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 어린 친구들이 성장하는데 한줄기 빛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전라북도 교육청에 장학금을 기탁해오고 있으며,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제9회 전라북도 회장배 체련대회 개최



전북도회는 지난 11월 1일 전주 상그릴라CC에서 제9회 전라북도 회장배 체련대회를 개최했다

전북도회(회장 이영길)는 지난 11월 1일 전주 상그릴라CC에서 전북도회 60여 회원을 비롯해 대전·세종·충남도회 박육순 회장 및 이명중 부회장, 본회 강신구 상임부회장,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광주·호남지점 신동칠 지점장 등 초청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전라북도 회장배 체련대회”를 개최했다.

이영길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그동안 우리 협회는 대외 이미지와 인지도 향상과 업계의 자긍심 고취, 그리고 청년층 일자리 마련 등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우리 회원사들이 책임있는 마음가짐으로 공사를 수행하여 건설하고 탄탄한 이미지로 우리의 모습을 승화시키자”고 강조했다.

이영길 회장은 또한 “떨어진 나뭇잎은 나무 밑에서 거름이 되어 다시 나무를 자라게 하듯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을 다 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어울림 한마당을 마련했다”면서 “소통과 공감함을 통해 기계설비인의 역할과 도약을 함께 고민해보자”고 밝혔다.

본회 이상일 회장은 강신구 상임부회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우리 업계는 그동안 법적·제도적 틀의 제약으로 인해 항상 홀대받고 만년 하도급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기 저하와 자긍심 결여로 늘 어깨를 펴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언급하며 “우리협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기계설비 육성 및 발전에 대한 관심과 제도 마련 등의 법적 지원을 요청해 왔으며, 일반 국민들에게 기계설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YTN 등을 통해 기계설비를 홍보하는 등 많은 노력을 펼쳤다”면서 “본회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전북도회 회원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체련대회가 어려움 극복과 새로운 활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체련행사에서는 (유)성심이앤지 박훈기 대표가 우승을 차지했고, (유)유일산업 유기춘 대표가 메달리스트를, (유)군장공조 전주환 대표가 니어리스트를, (유)동남이앤지 박교상 대표가 롱기스트를 수상했다. 